

우리의 보호를 위한 기도

마태복음 6: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4)(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임스 페커는 이렇게 말했다. “삶은 영적 지뢰밭이며 그 위험한 가운데 우리는 감히 자신을 의지 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 영혼의 지뢰밭에서 우리의 영혼에게 무서운 해를 가져온 것은 시단의 시험과 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시간 우리는 두가지 문제를 묵상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둘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이다.

1.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스 모스”인데 같은 단어를 쓰지만 뜻은 두 가지다. 우리나라 말도 시험이란 같은 단어를 쓰지만 뜻은 두 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해 주기 위한 시험(Test)이 있고 하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마귀의 시험(Temptation:유혹)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 하실 때 그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험(test)을 하셨다. 그가 시험에 합격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하신 것은 우리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시험을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우리는 그 시험을 달게 받고 그 시험에 승리함으로 더욱 강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test)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 자신의 인격에 기초한 도덕적인 선을 거부하도록 하는데있다.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도록 시험을 한다. 많은 사람이 이 시험에 실패하여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가장 큰 위험은 참 복음을 모른데서 온다. 오늘날 복음에 대한 큰 오해는 소위 변영 신학에서 온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변영 신학이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예수를 받은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육신의 소욕이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뜨거우며 하나님의 무한 절대적 충만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사랑과 능력과 평화와 확신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시험이란 이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시험의 형태는 너무도 다양하다. 즉 우리 자신의 지나친 욕심이나 마귀의 장난으로 인해 마음이 생각이 사악해져서 율법을 범하도록 부추이는데, 그 사악한 생각들이 바로 시험이다. 원래는 악하지 않은 것인데 마귀가 간계를 부림으로써 시험이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때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약 1:2,14, 참조 마4:1,3; 살전 3:5). 이러한 시험은 좌우에서 온다

우편에서 오는 시험은 예를 들면 부나 권세 명예 같은 것들이다. 부나 명예나 권세를 갖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자만에 빠진다. 부한 자는 더 부를 쌓고자 하는 욕심, 그 부를 나누어 주고자 하기 보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더 명예와 권세를 얻고 사치와 육신의 만족에 빠져 살게 하고자 하는 내적인 성향, 이것이 무서운 시험이다. 세상이 너무 좋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 욕망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다. 그 축복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궁핍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아주 게으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별 불편 없이 살아간다. 복음이 가져다 준 하나님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해도 별로 상관하지도 않는다. 예배를 형식적으로라도 드리면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배 한번 드릴 때 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덧 입지 못하면 큰 일 날 것처럼 생각하며 예배 한번을 잘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세가 없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며 하나님의 충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전혀 없다. 그래도 남의 것 훔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잘 못이 없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 이것이 엄청난 시험이다. 이 시험에서 벗어 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무기력에 빠져서 다시 회복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 해 버릴 것이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깊은 시험의 구렁이에 빠져 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활활 타오를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한 사람, 한 시간 이상을 걸어서 교회 다닌 사람, 평양에서 사경회를 하면 목포에서 평양까지 가는 사람이 많았다. 만약 오늘 날에도 그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고 설교하면 외면 당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시험이다.

좌편에서 오는 시험은 예를 들면 가난이나 치욕이나 멸시나 질병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은 시험이 올 때 낙담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믿음과 소망을 버리게 되며 하나님을 찾고자 열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산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 앞에 기죽어 산다. 나에게 가난과 치욕과 질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더욱 영적인 충만 함으로 어리석은 부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은 없지만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세상 적으로 가진 것이 없을수록 우리는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야 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고 살다 보면 부나 권세나 명예도 저절로 따라 온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다. 송명

히 시인처럼 나 세상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졌다고 노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한다.

2.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은 선을 파괴해 버리고 제거하는 나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 하는 세력이다. 가장 무서운 악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너무 미워 하신다. 두 마음을 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여호와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고 하였다(왕상 18:21). 둘 중의 하나를 선택 하라고 하였다.

두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힘은 완전히 소진된다.

한 자매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세상도 너무 좋고 하나님도 너무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낙을 즐기면서 교회도 포기할 수 없어 다니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심한 궁핍과 무능력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택하고자 하지만 하나님만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다. 자기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견딜 수 없다고 눈물을 쏟아 냈다. 바로 그것이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발을 걸치고 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단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큰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한다. 이것이 악에서 이기는 길이다. 악을 이기는 일은 단순한 것이다. 정말로 항상 깨어서 기도 해야한다.

악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사단을 굴복 시키는 **무기고**라고 하였다. 무기고를 사단에게 점령 당하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시험에 이길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무기고를 사단에게 점령 당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살고 있는가? 당신의 무기고는 안전한가?

벤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와의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다. 악 곧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해야 하는가? 이런 싸움이 없이는 금방 육신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무서운 실패의 인생이다. 성경에서 영적인 힘을 잃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 삼손이다. 그가 나실인으로 살 때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가? 사자를 주먹으로 쳐 죽이기도 하고 나귀뿔로 블레셋 군대 3000명을 죽였다. 그러나 그가 여인에게 빠져 능력의 근원인 머리털을 베었을 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멧돌을 갈며 할레 없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큰 다행은 그가 회개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했을 때, 살았을 때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을 죽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에서 벗어나서 싸워야할 악은 무엇인가? 각자 다른 악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 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나를 본다, 그래서 불쌍히 본다. 내일 모래 양로원에 나가야 할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나를 처량하게 본다. 사단은 늘 나를 다른 사라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낙심하며 살게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사단의 장난에 동조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 “아직도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능력 있게 한다. 육체적으로 젊은 사람들 보다 더 큰 비전과 능력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산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고자 매일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처량하게 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싸움을 멈추면 그 멈추는 순간부터 불쌍한 노인으로 전락 해 버린 것을 느낀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늙고 병들어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글을 보면 얼마나 투사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는 항상 기도함으로 악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이다.

단 한 순간도 방심하면 악의 근원인 사단은 우리를 무너 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 바울 같은 사람, 또한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삼키려고 찾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넘어 뜨려도 사단에게는 대단한 성공이기 때문이다. 바울 같은 삶을 살고자 한 사람은 바울처럼 악과 싸우기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 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너무나 절실한 기도이다. 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총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무력한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시험 한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감사합니다.